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 물을 이용한 생명력에 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보 라

# 물을 이용한 생명력에 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월 5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보 라

# 인 준 서

김보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_\_\_\_\_ (인)

심사의원\_\_\_\_\_ (인)

심사의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 논문 개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인간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며 그 꿈은 주체가 성장하면서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변화되고, 세분화, 구체화되기도 한다. 물론 꿈속에서도 현실에게 바라는 것,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기도 하며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의식 밖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력 유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생명력은 우주 생성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숨쉬고 있으며, 계속되어지고 끊임없이 연결된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성된 이래로 생명 활동은 상온에서 많은 유기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물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성을 이루는 존재이며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연유로 물은 많은 신화와 우주 창조의 핵심으로 존재해왔고, 예로부터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에게 생명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본인은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서 물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물이 없이는 탄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퍼센트의 물의 상태로 살아가기에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여겨지며 물이 가진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물은 인간과 매우 깊은 관계를 지닌 원초적인 물질이면서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내면성과 결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 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된 생명체로서의 물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며, 생명으로 연장되는 인간의 삶을 물이라는 대상을 통해 형상화 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물 이미지는 물질적 대상이 아닌 심리적 상징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인은 물이 가진 물질적 속성을 넘어 바슐라르가 정의한 물의 ‘물질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물을 자유롭게 사유하고 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물이 가진 생명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물의 분위기가 부여하는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함으로 회귀하고, 물이 주는 아름다움을 재인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재료로서의 속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서의 작업 방향에 새로운 토대로 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물의 상징적 의미와 특성 .....	3
2) 물의 생명력 .....	7
3) 물의 유동성과 다양한 형태 .....	9
2. 조형적 특성 .....	10
1) 물의 특성을 통한 표현방법 .....	10
2) 오브제를 통한 표현방법 .....	11
3) 색을 통한 표현방법 및 기계적 특성 .....	13
3. 작품분석 .....	14
III. 결 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800x800x1300(mm),2008 .....	13
【작품 2】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500x100x700(mm),2008 .....	16
【작품 3】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산소,500x100x700(mm),2008 .....	16
【작품 4】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안개500x100x700(mm),2008 .....	16
【작품 5】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	21
【작품 6】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	22
【작품 7】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	23
【작품 8】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	24
【작품 9】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	25

# I. 서론

자연은 모든 대상과 연관되어 끊임없이 순환하는 유기체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며 자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가며 이를 통해 그들의 감성적인 면을 개인적 인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며 이는 자연스레 창작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예술로써 승화되어진다.

수많은 자연 속에서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체들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어 순환하듯 기체, 액체, 고체의 형태로 순환하며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은 수증기가 되어 안개로 변화되기도 하고 다시 비가 되어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하는 희노애락과 닮아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본인은 물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작품표현의 모티브로 삼아 물이 가진 물리적 속성을 뛰어넘어 무한한 상상력의 시초로서 물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고, 생명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며, 물에 관한 조형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물은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보이며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이 일어나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 존재감을 물과 연결시킴으로서 인간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경험과 감성들을 끄집어내어 자연물 중에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

은 물의 이미지와 특성을 탐구하며 본인이 느껴온 감정들을 그 속에 투영하여 작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생각을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한다.

첫째, 물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성의 고찰을 통해 물이 지닌 본질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물의 여러 일반적인 의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생명의 의미를 본인의 작품을 기반으로 연구한다.

셋째, 물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본인의 작품에서 도입된 형태와 방법을 연구하고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논하고 조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을 논하는데 있어 본인의 작업방법이 기계장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고찰을 병행하며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속의 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물리적 특징이 기계적, 전자적 장치를 어떻게 다양하게 구현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물의 상징적 의미와 특성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고대로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자연의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물은 모든 생물 뿐 아니라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정착을 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이기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이끌어 내며 물의 표면적인 이미지 아래에 심화된 이미지가 존재하여 생기는 환영은 즐기는 상상력 또는 즐기기를 원하는 상상력을 통해 창조력을 생성하게 하는 흥미로운 대상이기도 하다.

이는 물의 심연의 깊이와 표면의 넓이, 파장, 흐르는 등의 물리적인 속성을 통하여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도록 유도하여 생명력이라는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갖으며 개인의 감정을 투영시키게 한다. 이는 물을 자양분으로 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원인이 된다.

물은 생명을 제공하고 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올라 저절로 움직이며, 고요한 상태가 될 때 완전한 수평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침전 작용을 하여 맑아진다. 또 그릇의 모양에 따라 어떠한 형태도 취하고 가장 조그마한 틈도 뚫고 들어가며, 강압에 양보하지만 가장 단단한 돌도 닳게 하고 얼음이 되어 단단해지고 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물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개념을 위한 모델이다. 이러한 자연세계는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뿌리 은유를 제공한다.<sup>1)</sup>

위와 같은 내용은 <순자>에서도 계속되고 물의 여러 종류의 형태 속에 구체화 되어있다. <순자>를 보면 자공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공자에게 질문하는 구절이 있다.

(자공이 물기를)

“큰 강물이 바라볼 때 마다 항상 관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은 惠(덕)과 같다. 아래로 흐르면서 구불구불 돌지만 항상 같은 원리를 따르는 물의 흐름은 義(의)와 같다. 솟아올라 결코 따르지 않고 흐르는 것은 道(도)와 같다. 수로가 있어 물을 인도하는 곳에서 듣는 그 물소리는 반향하는 울음소리 같고, 백 길의 계곡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은 마치 勇(용)과 같다. 수평을 재는 자로 사용할 때의 물은 마치 法(법)과 같다. 가득해서 덮개가 필요 없을 때의 물은 마치 正(정)과 같다. 물은 유순하고 탐색적이어서 가장 작은 틈으로도 들어가는데, 이때의 물은 마치 察(찰)과 같다. 물은 거치거나 물에 들어가 선명해지고 정화되는 것은 마치 선하게 되는 것 같다. 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항상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치 志(지)와 같다. 이것이 공자가 큰 강물을 바라볼 때 항상 관조하는 이유이다.”<sup>2)</sup>

물의 원리와 인간 행위의 원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같은 원리가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합리적으로 지배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공자는 물을 탐구했고, 순자도 물의 여러 가지 형태와 사람의 도덕적 특질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며 이러한 가정은 많은 고대 철학 서적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물의 실체는 구체화 하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움직임이 있는 독특한 반사체로서 이어진 곳이 없는 연속적인 무형의 신비함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 준다.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sup>3)</sup>는 물의 반사성에

1)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p25-26

2)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p53

대해 “반사된 세계의 아름다움 때문에 호수, 연못, 잠자는 물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운다.”라고 하여 물의 반사성으로 인한 우리의 상상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는 물은 크게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였는데 다시 부드러운 물에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연결 지었다. 이는 부드러운 물이 상상력에 있어 원초적이며 절대적인 우월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로 광대한 바다가 부드러운 물인 시냇물이나 강만큼 상상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접촉이나 감지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물에 의해 탄생되는 물의 상상 세계는 물질적 상상력, 문화의 콤플렉스, 역동적 상상력, 모성적 상상력으로 구분 지었다.<sup>4)</sup>

물질적 상상력은 맑은 물은 일종의 표면적인 관점에서 물을 볼 때 맑고 투명함과 신선함, 거울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직접 물과 접촉을 함으로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무의식의 세계가 근원적으로 물에 의해 물질화된 경우를 말한다. 예로 <봄의 물>은 맑은 물을 가르킨다. 그 물의 속성은 신선함이다. <깊은 물>은 잠자는 물을 가르키는 것으로 깊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 물을 어둡다는 데 특징을 가지며, 어두운 심연, 즉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며 두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두번째로, 문화의 콤플렉스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대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상징체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무의식이 아닌 책이나 전설,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의 영향이 무의식에 세계에 뿌리박은 상태를 말

---

3)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생파뉴 지방의 바르쉬르 오브 태생. 構造主義(구조주의)의 선구자이며 時論(시론), 이미지론으로도 유명하다. 과학사, 과학철학과 문예평론과의 연관성에 대해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디종대학 철학교수를 거쳐 소르본 대학 교수를 지냈다.

4) 물과 꿈, 문예출판사,1985, p282-285

한다. 이는 물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교육의 결로를 통해 근원적으로 인간의 상상 세계에 뿌리를 내린다는 점에서 물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로 나룻배에 태워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신화는 죽음의 이미지와 더불어 떠남, 이별을 얘기한다.<sup>5)</sup>

세 번째, 역동적 상상력은 물의 물질적 상상력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 상상력을 지배하는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능동적이 되어서 인간의 의지력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가르키며, 근원적으로 볼 때 맑은 물이 도덕적 순수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이다.

네 번째, 모성적 상상력은 물이 흐르는 유동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물이 바다로 향해 흐르는 것을 근원을 찾아 움직이는 순리로 본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 머물던 양수, 또는 어머니의 모유에서 알게 된 액체 등으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어 물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으로 흐른다는 이미지와 연관시킨 것이다.

상상력의 원천이자 사유의 대상으로서 물은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담은 내밀한 세계로 다가온다. 물은 다양한 속성을 통하여 정신적인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를 통해 물질적인 성질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상상력을 유도한다.

물을 통해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가능하며 이 상상력은 존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원초적이고 영원한 것을 존재 안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

5)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를 저승으로 건네준다는 뱃사공

## 2) 물의 생명력

물은 세계와 모든 창조물들의 자궁이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현상 배후에 숨어 은밀히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력은 숨쉬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 작용은 멈춤이 없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로 생명 작용은 상온에서 많은 유기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물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아래의 파라켈수스<sup>6)</sup>의 말에서도 위와같은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물이 창조물들의 자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가장 고귀하고 우아한 색들이 검고 더러운 땅에서 생겨나자, 태초에는 형태없는 오물에 불과했던 원시물질로부터 다양한 창조물들이 탄생되었다.”<sup>7)</sup>

물은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물은 그만큼 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면 한 방울의 물이 귀한 생명수가 되기도 한다. 물은 모든 생명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을 갖춘 환경을 조성해주는 매우 드문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

고대인들은 물은 많은 신화와 우주 창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며 물의 생명의 근원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모든 신과 사물의 기원인 오케아노스(Okeanos)는 대지의 끝을 휘감고 둘러싸며 흐르는 대하(大夏)의 신으로서 샘, 개울, 강 등 지상의 모든 물이 흘러가고 나

---

6) 필리푸스 파라켈수스 [Philippus Aureolus Paracelsus, 1493.9.24~1541.11.10] 스위스의 의학자이자 화학자, 신학자이며 철학자.

아인지델른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테오프라스투스 호헨하임.

7) H2O, 양문출판, 2003, P.5

오는 거대한 원천이었으며, 그가 태초에 물의 여신인 테티스(Thetys)와 결합하여 모든 것을 생성시켰다 하였다.

이렇게 물을 생명력으로 보는 것은 신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풍수사상에서도 이는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 환경인 산수를 인간의 회복과 관련시켜 이뤄진 것이 풍수사상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바람과 물에 대한 사상이며 부는 바람을 잡고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물은 땅을 살리고 죽이며 특정한 지맥을 형성하여 인간에게 복을 주는 땅, 즉 명당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물은 바다나 강처럼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땅속으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 결국 생명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물이 생명임을 확인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은 70퍼센트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심지어 99퍼센트가 물이며, 막 태어났을 때에는 90퍼센트, 완전히 성장하면 70퍼센트, 죽을 때는 약 50퍼센트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간다.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몸 속의 물을 50 퍼센트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기는 물은 물질적으로 볼 때 생명인 것이다.<sup>8)</sup>

---

8)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나주심는 사람, 2002, P.13

### 3) 물의 유동성과 다양한 형태

유동적이란, 사전적 의미로 동적인 이미지의 변화 가능한 성질은 떠는 것을 말한다. 규정되어있지 않아 얼마든지 덧붙여지고, 지워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무정형적인 것을 뜻한다. 기계적, 또는 고정적이란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다.<sup>9)</sup>

액체일 때의 물은 일정한 부피가 있으나, 일정한 모양이 없는 유동적 속성을 띠어 ‘흐른다’는 것은 물의 가장 특성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물은 일정한 부피를 가지되 그 고유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 그것이 존재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물리적 한계와 형태가 결정된다.

물을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 하며 낮은 곳으로 향하려 하는 성질과 잠재적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sup>10)</sup>

물의 움직임은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이 존재하는 환경과의 관계, 즉, 유동적 여건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 유동적 여건이라 함은 지형이나, 바람, 혹은 진동 등의 타의적 요소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형태와 속도, 그리고 소리를 지닌 물은 끊임없이 다양한 효과와 느낌을 가지며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성시킨다.

물은 상온에서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이며 도처에 바닷물, 강물, 지하수, 우물물, 빗물, 온천수, 수증기, 눈, 얼음 등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물은 기온에 따라 0℃이하에서는 고체, 100℃이상일 때는 기체, 0℃이상과 100℃이하 일 때는 액체의 성질을 띤다. 고체일 때의 물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지만 모습이 쉽게 변형되지 않고, 기체일 때는 각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서 일정한 모양이 없이

9) 국어대사전 中(중), 삼성문화사, 2003, p2080

10) 물이란 무엇인가, 전파과학사, 1992, p35

부피를 갖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물의 유동성과 형태의 특성은 본인의 작품 속의 재료로서 다양한 형태와 상상력을 제공한다.

## 2. 조형적 특성

### 1) 물의 특성을 통한 표현방법

인간의 시각을 통해 물이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분위기에 따라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향수, 동심으로의 회귀 등의 느낌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물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의 느낌을 통해 각자의 사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예술가로 인해 전환된 형태를 응시하고 있으면 자연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생명력 외에도 상당한 감흥을 일으킨다. 예술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상적으로 다른 모습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주고 정서적 감흥을 일으켜 주기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들을 물과 접목시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속의 물은 일정한 모습으로 시간의 과거와 현재를 투영하며 경험적, 시간적 요소를 가지는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주변의 생명적 존재들과 관계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러한 생명 에너지와 생명적 존재들의 결합은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상상력을 유발한다.

여러 오브제들을 통과하는 연속적인 물의 형태와 소리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의 정서에 파장을 일으키며 사고의 변화를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물과 오브제를 연관 지어 상상하게 만들며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물과 오브제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교감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며 사색을 일으키는 공간이 되어준다.

본인의 작품 속에 물의 이미지는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 생명의 투입과 연결의 의미로써, 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오브제를 통과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물의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살려 안개, 혹은 산소가 주입되어 생기는 형태의 변화를 작품 속에 응용하여 생명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 2)오브제를 통한 표현 방법

예술가가 추구하는 형(形)이란 단순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목적 또한 될 수 없다. 예술가는 형(形)의 도입으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며 자연의 형을 직접 도입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의 형을 변형시키거나 단순화 시키면서 의식으로부터 떠오르는 형을 표현한다. 이로써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의 전체를 집약시킬 수 있을 것 인가를 관찰하여 집약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를 재형성,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생명력의 연결과 투입의 의미로서의 물을 자아의 동심을 상징하는 오브제와 접목시켜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에 젖어있는 우리의 정신에 파장을 일으켜 사고의 변화를 모색하게 만든다.

마술라르에 의하면 꿈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라 하였다. 우리들의 꿈은 어린 시절에 탄생지에서 이미 물질화된다. 고향이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의 물질인 것이다. 시냇물이나 강이 흐르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물에 의해 그의 무의식이 지배된다. 결국 인간은 편애하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원초적인 감정, 근원적으로 몽상적인 하나의 기질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오브제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정서에 의거하여 형태를 제작하였다. 본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은 현실적으로 변화된 지금 의미와 중요성을 잃은 것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연의 이미지들과 장난감, 눈(시각), 날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모유는 동심으로의 회귀를 도와주는 매개체이다. 이것은 과거 속에 살아있는 추억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동심속의 오브제의 차용은 도달해야 할 미래, 이루어야 할 창조적 과제를 현재의 근본이 되는 과거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 속에 적용되어진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 돌아감과 동심으로의 회귀를 통해 감추어진 상처를 드러내어 주고 그것에 자아를 담아내어 상처를 치유한다.

본인의 작품 속 물의 이미지인 생명력의 투입과 연결, 혹은 유지의 의미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법한 동심 속의 오브제들의 접목으로 현실 속에서 정신적 이완과 심리적 휴식, 정화된 정신을 유발하며 자아를 되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인 꿈을 가지게 한다. 이는 이미 과거가 되어 현실 속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현재와 미래를 걸쳐 나라는 존재의 내면성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체험이자 공간이 되어준다. 또한 우리가 모태 안에서 무의식중에 접한 물과의 교감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정신적인 이완을 통해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사색을 일으키게 한다.

물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자연의 소리는 현실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로인해 자연과 동심으로의 회귀를 유발하게 하며 현실 속에서의 생

명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꿈을 유발한다.

### 3)기계적 특성과 색을 통한 표현방법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물의 연속적인 흐름과 형태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기계와 전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물리적 현상을 야기시키고 그런 물리적 현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시각적 효과와 심미적 상황들을 발생시킨다. 작품 속에서 물이 가진 유동적인 특성은 운동이나 흐름을 나타내기 매우 적절하며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도 지니고 있어 소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물의 물질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진다. 가장 주된 방법은 일반적인 물의 흐름을 작품 속에 전자장치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작품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전자와는 다른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물의 형태를 안개로 변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물에 산소 공급 장치로 산소를 공급하여 물의 시각적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전자장치들은 당초 그것을 설계했던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길 바라는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사용됨으로서 예기치 못한 심미적, 예술적 상황을 연출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전달은 소리를 파생시키며 이는 시각적 이미지와 중첩되어 개인적 경험에 의거하여 물의 상징과 더불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써 정적인 물의 모습에서 동적인 물로 전환될 때 표출되어지는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생명력의 상징을 부각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술작품에 있어서의 색채는 대상을 재현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구실 뿐 아니라 색을 통해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매체로 예술가의 사고를 반영

한다. 따라서 작품에서의 색채들은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작품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의 오브제들의 색감은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본인이 작품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생명력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색은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인간 공통 언어이며 인간이 느끼는 시각언어로서 조형예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상기억 작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의 비평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1819-1900)은 색채는 인간 마음의 영원한 위안이며 즐거움이라 하였으며 이는 인체의 생명과 하늘의 빛남과 땅의 청결함과 확고함을 연상케 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색채란 작품에 있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요인이되며 사람들의 경험에 의거하여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에 본인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부합하다.

### 3. 작품분석



【작품 1】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800x800x1300(mm), 2008

## 【작품 1】 피어나다.

연도 : 2008년

크기 : 800x800x1300(mm)

재료 : 혼합재료, 물

### 제작방법

이 작품은 한 가지 재료가 아닌 여러 재료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물을 설치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직육면체의 박스를 만든다. 이 때 산출되어진 물통의 높이와 넓이는 물이 순환하는 파이프의 길이와 물이 떨어지는 구멍의 수, 수중펌프(400w)의 전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위의 사방이 트인 직육면체를 제작하고 천정에 지름 1mm의 9개의 구멍이 뚫린 판을 대어 용접하여 물줄기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한다.

사방이 트인 직육면체 바닥에 합성수지로 제작된 꽃 형태의 오브제를 얹어놓아 떨어지는 물줄기가 오브제를 통과해 다시 물통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사방이 트인 직육면체 안에 물이 수중펌프를 통해 순환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설치한다.

물을 아주 작은 틈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접합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하며, 언제든지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물통과 오브제가 놓여지는 직육면체를 분리형으로 제작한다. 또한 물의 과다공급을 막기 위하여 3분에 한 번씩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전원에 연결한다.

### 작품설명

본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본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꽃 형태의 오브제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름 또한 있지 않으나 작품속의 오브제로 재현되어졌을 때 이는 현실 속에 존재하며 동시에 자연의 생명체를 대변한다.

이 작품은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력을 시각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재를 의미하는 실재 물을 작품의 부분으로 끌어들이어 왔다.

움직임을 부가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직육면체의 사망이 트인 박스를 통해 모든 지구상의 생명력의 원동력의 시초이기도 한 비가 오는 분위기를 재구성 하였다. 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력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존재하게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에 작품에 의도에 부합한다.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물줄기는 작지만 힘찬 약동성을 가지며 작품속의 오브제를 통과하여 그것의 의미를 지니고 생명력을 투입, 연결시킨다.

작품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움직임은 사용되는 물을 전시기간 동안 실재로 살아있게 해준다. 또한 움직임을 통해 작품에 활력을 더해 주며 보이하고자 하는 작품의 의미를 배가시키며 더 큰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대지 위의 수많은 생명을 대변하는 화려한 색감의 오브제는 물을 포함하는 단순한 오브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게 된다.

또한 작품에서 생성되는 하강하는 활기찬 물소리는 실재로 연속적인 움직임을 강조해 주고 색다른 분위기를 조성한다.



【작품 2】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500x100x700(mm),2008

【작품 3】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산소,500x100x700(mm),2008

【작품 4】 그리고 피어나다..혼합재료, 물, 안개500x100x700(mm),2008

【작품 2】 그리고 피어나다.

연도 : 2008년

크기 : 500x100x7000(mm)

재료 : 혼합재료, 물

#### 제작방법

본 작품은 부조의 형태로서 물을 순환시키는 기계 설치를 위하여 직육면체의 배경을 가진다.

배경의 표면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차가움을 덜기위해 샌딩 처리를 하며 물로 인한 약간의 부식을 막기 위해 무색의 코팅처리를 한다.

물의 순환을 위해 안쪽에 물통을 제작하여 삽입하고 수중펌프(30w)를 설치하여 물통과 오브제를 연결하는 호수로 순환시킨다.

물통은 수중펌프의 전력을 고려하여 포함할 물의 리터를 결정한 뒤 제작하고 물의 기계의 높이에 맞춰 물의 배출구를 만든다..

표면위에 부착되어질 오브제는 물에 상하지 않고 영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로 제작한다. 부착되는 오브제간의 거리는 수중펌프의 전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 작품설명

위의 【작품 2,3,4】 은 생명 탄생 과정과 탄생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다. 【작품 2】 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생명의 물의 이미지를 조형화 한다. 이는 생명 탄생의 근본이기도 하다.

대지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오브제와 자연을 대표하는 하늘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오브제 사이를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는 끊임

임없이 생명력이 존재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자연 뿐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며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며 이를 계속 반복한다. 이는 물이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하여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창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작품 3】 그리고 피어나다.

연도 : 2008년

크기 : 500x100x7000(mm)

재료 : 혼합재료,물,산소

#### 제작방법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작품의 배경의 크기와 표면을 처리한다.

본 작품은 배경의 부분을 제거하여 물통을 표면위로 들어내고 물에 산소 공급기를 이용하여 산소를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표면위의 부착되어질 오브제의 제작방법 또한 【작품 2】와 같으며 물통의 크기는 산소공급 거리를 생각하여 결정한다. 산소의 과다공급으로 물통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소가 순화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을 만든다.

#### 작품설명

【작품 3】의 잎사귀 형태의 오브제와 산소공급의 물의 형태는 생명탄생의 시작을 말하고자 한다. 잎사귀는 꽃이 탄생되어지기 전에 식물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잎사귀가 생성된 이후 식물의 완성체라 할 수 있는 꽃이 탄생되어지기에 생명탄생을 시작을 이야기한다.

물에 산소가 공급되어 생성되는 연속적인 움직임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며 공급되는 산소는 숨을 쉬고 있음을 알린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유지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의 완성을 위한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동시에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작품 4】 그리고 피어나다.

연도 : 2008년

크기 : 500x100x7000(mm)

재료 : 혼합재료,물,안개

#### 제작방법

【작품 2,3】 과 같은 방법으로 작품의 배경의 크기와 표면, 오브제의 재료를 결정한다.

본 작품은 안개를 재료로 함으로 안개발생기를 이용하며, 제작된 오브제에 삽입하고 물을 공급하여 안개를 발생시킨다. 안개 발생기의 높이를 고려하여 오브제 크기와 물의 양을 결정한다.

#### 작품설명

【작품 4】 의 화려한 색감의 꽃 오브제는 생명의 완성된 형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품 속의 안개를 통해 비로소 피어난 생명의 결실인 향기를 내는 듯 한 형태를 조형화 하였으며 이를통해 인간이 가지는 오감 중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하고자 하였다. 제작 되어진 오브제는 단지 꽃의 형태를 표현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변하며 상상력을 자극하여 개인적인 정서를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 5】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작품 6】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작품 7】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작품 8】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작품 9】 하늘을 주다.....혼합재료, 물, 350x350x1350(mm),2008

【작품 5】 하늘을 주다.

연도 : 2008년

크기 : 350x350x1350(mm)

재료 : 혼합재료, 물

제작방법

본 작품 또한 위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순환시키는 형식을 가지며 재료를 사용한다. 물통은 오브제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물통의 크기 또한 수중펌프(40W)의 크기를 고려하여 높이와 지름을 정한다.

다섯 개의 오브제를 같은 형식으로 설치함으로 시각적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 전체적인 모양을 디자인한다.

오브제간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파이프를 연결하며 작품에 떨어지는 물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주었다.

작품설명

본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도와주는 매개체이다. 본인에게 어린 시절 장난감 자동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상의 이동수단이 되어주었다.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본인에게 이는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을 회상하게 한다. 동심으로 돌아감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꿈꾸던 당시를 회상하며 다시금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 이러한 회상은 상처를 치유하고 여유를 주며 자유로운 정서를 제공하여 준다. 이로써 현재의 모습에 대한 위안을 얻고 회귀함으로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작품 6】 하늘을 주다.**

연도 : 2008년

크기 : 350x350x1350(mm)

재료 : 혼합재료,물

**제작방법**

**【작품 5】**의 제작 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동물의 날개를 단순화시킨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단순화 된 동물의 날개는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자연을 이야기 하며 동시에 날개가 가진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이다. 어린 시절 날개를 지니고 하늘을 나는 꿈은 상상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또한 물이 통과하는 구름의 형태는 날개가 가진 자유로움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오브제인 구름 모양의 하늘을 투영한다. 하늘은 무한한 공간을 대변하며 날개를 가진 동물에게 자유로움의 공간이 되 듯 상상의 자유로운 대상이 되어준다. 다양한 동심의 시각에서 가진 꿈은 현재에서 가질 수 없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기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작품 속에 끌어들여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에 위안을 얻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자 한다.

【작품 7】 하늘을 주다.

연도 : 2008년

크기 : 350x350x1350(mm)

재료 : 혼합재료,물

제작방법

【작품 5】의 제작 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안구의 형태를 단순화 하였으며 이는 동심의 시각을 이야기한다. 하나의 사물을 보았을 때 동심의 시각과 현재의 시각은 각기 다른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해석하게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앞 작품설명에서 말한 하늘의 무한한 상상의 공간과 자유로움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늘의 이미지를 안구형태의 오브제에 연결하기 위하여 연결매체로 색을 선택하였다.

【작품 8】 하늘을 주다.

연도 : 2008년

크기 : 350x350x1350(mm)

재료 : 혼합재료,물

제작방법

【작품 5】의 제작 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곰 인형을 단순화 시켰다. 단순화된 곰 인형은 실제로 어린 시절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온 것이나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본인에게는 과거 속의 물건일 뿐이다. 곰 인형은 본인이 못 다한 말을 대신하는 존재이므로 본인의 분신이기도 하다. 현실과 상상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작품을 통해 본인은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지금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동심을 되돌아봄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동심의 시각을 되찾고자 한다.

【작품 9】 하늘을 주다.

연도 : 2008년

크기 : 350x350x1350(mm)

재료 : 혼합재료,물

제작방법

【작품 5】의 제작 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가슴을 조형화 하였다.

어머니의 가슴은 육체적으로 본인을 성장하게 해주는 식량임과 동시에 따뜻한 안식처이다. 각박한 현실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는 휴식처이자 상상을 하고 꿈을 가지게 해주었던 시절을 회상하게 도와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 Ⅲ. 결 론

생명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까지도 경시하는 풍토화에서 상실된 감성 회복의 토대가 되며 삶의 근원성을 밝히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

삶의 과정에서 겪게되는 경험은 생명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제기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고 이러한 깨달음은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명감을 인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형소재인 물의 생명력을 표현함에 있어 분위기에 따른 물의 느낌을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조형화 하였다.

본 연구자가 느낀 물은 아름다움,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향수, 동심으로의 회귀 등이며 이러한 감정을 물의 움직임과 물에 다양한 형태를 오브제에 접목시킴으로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작업을 통하여 물의 상징적, 물질적 특성을 알게 되었으며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었을 때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이 내면적으로 관조하여 성찰할 대상으로 적절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생명력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생명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조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생명력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이자 본능임을 인지 할 수 있었다.

물의 무형적 특성과 유동성은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때 다양한 분위기를 내주는 만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작업해야 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앞으로 본 연구자는 물의 느낌을 표현함에 있어 제한적인 오브제의 형태를 접목시켜 물의 느낌과 상징을 제한하지 않고, 물의 유동적 특성과 상징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전개에 있어서 대상의 속성을 보다 깊이 연구, 관찰하여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감상자들로 하여금 보다 넓고 깊은 상상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물의 분위기가 부여하는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함으로 회귀하고, 물이 주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재인식 하며, 생명유지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또 다른 꿈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사라 알란, 예문서원, 1999

물과 꿈, 가스똥 바슐라르, 문예출판사, 1985

H2O, 필립 볼, 양문출판, 2003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코 마사루, 나무 심는 사람, 2002

물이란 무엇인가, 우에다히라 하사시, 전파과학사, 1992

미술과 물리의 만남, 레오나드 쉘레인, 도서판국제, 1997

물의 이미지를 통한 감성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고승희, 2007

물의 유동적 이미지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지미, 2007

물 이미지를 이용한 생명력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김은영, 2006

## ABSTRACT

### **Sion research of life power which it uses the water** -On the basis of my work-

Kim, Bo Ra  
Dept. of Plastic Art  
Graduated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eople live in a various dream, constantly try to accomplish it and maintain a life. The human being day by day lives in effort in order to arrive to the goal which oneself makes, the dream itself get to be changed, fragmented and concreted as the subject grows with intelligent physical in individuality of each on.

Certainly, in a dream the desire that wishes in actuality or is satisfied is reflected, appears with dream that the thing out of consciousness to hide in actual inside. At the end, it makes the basic cause of maintainance of human's life.

The life force is origin of uniververse creation. Like this life force in the place where is invisible is breathing,

Keeping on and costantly connected. Life activity made the many organic material from normal temperature since the living things has been created in earth, and this begins in water by the root.

The water is an existence that consists of the root of life of all living things, regarded as the root

Of all energy like this. so it has existed that the water came with core of many myth and universe creation, recognized in the existence which has the key of vital force by many thinker, artists.

I used the water as the material of expression for a vital force because no life is without the water.

The human being lives in condition of the seventy-percent water from birth

to death, regarded as the origin of all energy which are physical and metaphysical, so there is a thread of connections between human and water.

The water having the fluid feature is the basic material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human being, a possibility of trying to give many meaning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lity of human being.

This research is willing to investigate essence of water for latent living things, illustrates the human life which is extended in life from the water.

Also, the image of the water which appears in work is not the material object but psychological symbol, i try to visually illustrates the emotion of myself from this.

I freely cogitate on the meaning of the water on the basis of bachelard's definition, that the water has material imagination, beyond it's material attribute, and by symbolic meaning of water

Consider the water's life which is the root of nature human and life, from various angles.

Also. It revolves at the purity of human origination by imagination which the atmosphere of the water gives, makes with the opportunity which it takes another look and character of it's beauty, analyzes on attribute and an effect as material, and in work direction it makes with new base and character it does in future.

